

# ‘플라이닝 더치 윙백’ 주머니 받거나... 우승 날개 단 ‘오렌지 군단’

## 네덜란드, 美 꺾고 8강 선착

윙프리스, 페널티 박스 침투후 킥백으로 전반 추가시간 블린트의 추가골 도와 후반엔 블린트 크로스-윙프리스 췌기골 견어내기-가로채기 등 수비서도 ‘탄탄’

‘오렌지군단’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카타르 월드컵 8강 자리를 차지했다. 8강 진출 일등공신은 득점 1위 학포가 아닌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만점 활약을 보여준 윙백 듀오 블린트-윙프리스였다. 첫 우승을 위해서 ‘플라이닝 더치맨’ 윙백 듀오가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는 4일 0시(이하 한국 시각) 카타르 알리안 카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 나섰다. 이날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조별리그에서만 3골을 몰아친 코디 하프(23-PSV 에인트호번)다.

이날 학포는 좋은 움직임은 보였으나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득점을 책임진 건 주위 윙백 데일리 블린트(32-아약스)와 덴젤 윙프리스(26-인터밀란)다. 먼저 윙프리스가 전반 10분 델피스 데카어(28-FC바르셀로나)의 골을 도우며 경기 초반 공격 분위기를 개었다.

전반전 추가시간엔 윙백 듀오의 작품이 나왔다.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한 윙프리스가 내준 킥백을 블린트가 호흡대 오르발 슈팅으로 연결해 추가골을 만들었다. 후반 36분에는 반대로 블린트의 크로스를 윙프리스가 강한 발리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블린트는 1골 1도움, 윙프리스는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8강으로 견인했다.

오렌지군단의 ‘플라이닝 더치맨’ 윙백들은 공격뿐 아니라 본분인 수비도 탄탄하게 지켰다. 윙프리스는 견어내기 2회, 가로채기 3회, 태클 1회를 성공했다. 후반전에는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공을 극적으로 견어내며 실점을 막았다. 블린트도 견어내기 2회, 가로채기 1회, 태클은 무려 7회를 성공하며 든든한 수비 실력을 보였다.

백3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윙백이다. 수비 상황에서 센터백 옆으로 내려와 백5를 형성하고, 공격 상황에선 원어처럼 뛰어나가 공격진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공수 양면에서 구멍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큰 포지션이다.

현대축구에선 비단 백3 전술 뿐만 아니라 백4에서도 윙백들은 ‘공수 겸장’이어야 한다. 한국 대표팀의 좌우 윙백 김진수(30), 김문환(27-이상 전북 현대)도 조별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국민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김진수는 가나전 조규성(24-전북 현대)의 득점을 도왔고, 김문환은 포르투갈전 코너킥 헤더 싸움으로 역전골의 시발점이 됐다.

네덜란드의 ‘플라이 윙백’ 듀오는 이번 월드컵 여정에서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16강전에서 톱프리스의 활약이 눈에 띄었고, 블린트는 조별리그부터 꾸준한 실력으로 학포에 이어 팀 내 평점 2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을 3-1로 꺾은 네덜란드는 10일 아르헨티나와 준결승엔 티켓을 다툰다.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에서 백3 전술을 사용한 멕시코를 상대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 네덜란드가 8강을 넘어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블린트-윙프리스의 활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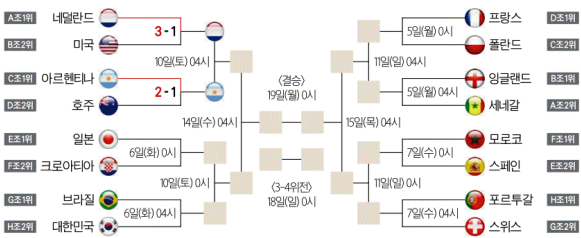
김환진 기자 hhh8931@sporbiz.co.kr



네덜란드 축구대표팀 덴젤 윙프리스가 4일(한국 시각) 카타르 도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미국과 경기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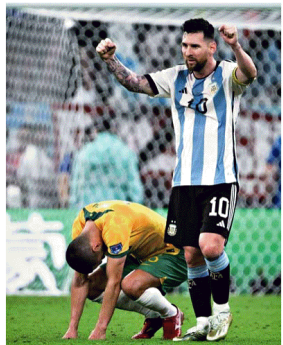
## 2022 카타르 월드컵 토너먼트 대진표

(4일 오후 현재)



## ‘축구의 신’에 막힌 아름다운 패자

호주, 우여곡절 본선 합류 뒤 깜짝 16강 우승후보 아르헨티나 잘 싸웠지만 1-2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오른쪽)가 4일 오전(한국 시각)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호주에서 승리한 뒤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커부’ 호주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일정이 16강전에서 마무리됐다. 선전했지만 결과가 아쉽게 ‘짚잘싸(잘싸지 잘 싸웠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5-파리 생제르맹)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비록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박수 받아 마땅한 시간을 보낸 건 분명하다.

사실 호주가 녹아웃 스테이지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한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대회 전 유럽축구 통계전문사이트 ‘옵티’는 프랑스와 덴마크의 16강 진출을 각각 87.9%와 72.1%로 예상했다. 반면, 호주에 대해서는 20.7%로 예측했다. 호주는 거스 허딩크(76) 전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지난 2006년 독일 대회 이후 16강에 진출한 경험이 없다. 당시에는 전설인 톱 케이힐(43)을 비롯해 마크 비두카(47), 마일 에디나(38), 마크 슈워처(50), 해리 케일(44)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즐비할 정도로 강한 전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눈에 띄는 ‘에이스’가 딱히 없었다. 26명의 명단 중 월드컵 본선 무대를 경험한 선수는 단 9명뿐이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했던 골키퍼 매튜 라이언(30-코렐리아노)과 매튜 레키(31-멜버른 시티), 애런 모어(32-셀틱) 정도가 국내 팬들에게 익숙한 선수였다.

본선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회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B조 3위에 그쳐 탈락 위기에 몰렸다. 이후 치른 플레이오프에서 A조 3위 아랍에미리트(UAE)를 꺾고,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 남미 5위 페루를 승부차기 끝에 제압한 뒤 극적으로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본선에서도 첫 단추를 잘못 꿴다. 조별리그 D조 첫 경기에서 디넨딩 챔피언 프랑스를 상대로 1-4

로 완패할 때까지만 해도 16강행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튀니지와 덴마크를 연달아 꺾고 조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튀니지전 41.9%, 덴마크전 31.3%로 볼 점유율에서 밀렸지만, 탄탄한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역습 축구로 기적을 연출했다.

16강전에서도 객관적인 전례에서 앞선 아르헨티나를 끝까지 진탕 흘리게 만들었다. 먼저 두골을 내준 뒤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추격전을 벌였다. 1-2로 뒤진 경기 종료 직전 놀라운 집중력으로 동점 찬스를 만들어 축구팬들의 감탄사를 이끌어냈다. 16년 전보다 스쿼드가 빈약했지만 열광은 그에 못지않다. ‘아름다운 패자’로 퇴장하지만 호주가 보여준 투지와 정신력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은은한 여운을 남겼다.

김호진 기자 hoo006@sporbiz.co.kr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시로 아이들 100명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외치는 아이들의 한 목소리**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www.childfund.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